GUKJENEWS News Agency

부산 사하소방서 '화재피해주민 119안전기금' 전달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소화기 지원 등

2019년 08월 29일 (목) 14:07:07

김옥빈 기자 obkim5153@naver.com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사하소방서는 갑작스런 주택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어 실의에 빠진 화재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고자 29일 사하소방서에서 '119안전기금'과 소화기를 전달하고, 화재로 인해 심리적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화재피해 주민에 119안전기금 전달식 모습/제공=사하소방서

119안전기금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부산 시민들을 돕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 주거 복구,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지원하고, 화재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119안전기금 전달식은 지난 7월 30일 '사하구 괴정동'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임 모(72)씨에게 소방공무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119안전기금(생활안정자금) 500만원과 소화기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 지난 7월 30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화재피해 주택 모습/제공=사하소방서

신현수 사하소방서장은 "소방관은 여러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조사 등 소방 활동을 하고 많은 화재피해주민을 접하며,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픈 마음과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절실하다"며 "이번에도 어려운 상황에 빠진 화재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19안전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